

# ‘정윤희 문건’ 회오리... 정국 격랑 속으로

### 野 “비선 국정농단 심상시 게이트”... 특검·국조 요구 與 “검찰 수사로 진실 가려낼 일... 정치공세 중단해야”

‘정윤희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의혹이 연달아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권은 1일 이를 ‘국기 문란’에 따른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이 사건을 ‘심상시 게이트’로 명명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실시까지 촉구하며 정쟁화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책임자 처벌과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이번 사건이 대형 정치 쟁점으로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진화하려 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랜만에 잡은 반전의 계기를 놓칠 수 없다는 듯 오히려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과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 문건 때문에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관련 인사들이 이 문제를 검찰에 고소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구 원내대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여야는 산적한 국정 현안에 협조해야 하며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건을 ‘심상

시(후한말 국정을 농단한 열명의 내시) 게이트’로 명명, 정윤희 씨를 비롯한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해왔다고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게이트’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집권 3년차를 앞둔 정권의 힘을 빼고 정국의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설 특별검사 도입 및 국정조사,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일제히 요구하고 자체 진상조사단을 통해 당 차원의 실사에 착수하는 등 파상 공격을 펴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선실세 몇 명이 국정을 농단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만민회’에서 ‘심상시’까지 박근혜 정부 내 비선 실세 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부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연말 ‘법안국회’가 이번 사건의 여파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회기가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가 2일 예산안 처리 이후에 파행 사태를 맞을 수도 있고,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여야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비서관들 어디갔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청와대 제1, 2 부속 비서관이 불참한 가운데 일부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고강도 수사 주문

## “靑문건 유출 국기문란 행위 부적절 처신 확인땀 일벌백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에 따른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에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번 파문이 촉진 인사들의 ‘국정 농단’ 의혹, 나아가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간의 ‘권력 암투설’로까지 번지자 이를 조기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발언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 이번 파문의 본질을 문건유출으로 봤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문건유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문건유출에 대해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러한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제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국정농단 행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조금만 확인을 해 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나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문건을 보도한 언론을 질타했다. 나아가 그동안 야당 등에서 제기해온 ‘만민회(박지만·이재만·정윤희 등 친인척 및 실세 3인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뜻)’를 언급한 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사태를 모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비선 실세들이 협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의혹이 밝혀졌는데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문건 유출 경위 수사로 물꼬를 돌려 사태를 모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검찰, 문건수사 특수2부, 형사1부 배당

## “명예훼손·문건유출 두갈래 수사”

정윤희(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1일 사건을 명예훼손과 문건 유출로 나눠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문건 유출과 관련한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 산하 특수2부(인권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명예훼손 부분은 전담 수사 부서인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분리 배당했다.

사실상 옛 중수부 기능을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한 배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제를 강조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국정 운영의 핵심기관인 청와대 내부의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특수2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고소가 단초가 된 사건이 특별수사로 전환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당분간 문건 유

출 부분에 집중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박모 경정은 유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박 경정은 이날 오전 6시 55분께 과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시내 한 경찰서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나는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이틀간 휴가를 내고 오전 9시에 사무실을 떠났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희)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하자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우선 문건의 실체와 유출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박 경정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경정을 출국금지하는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경정의 주장처럼 제3의 유출자가 있다면 수사는 우선 유출자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정가라운지

#### 박주선,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국회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사)개성공단기업협회 등과 함께 2~3일 양일간 서울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2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 황부기 통일부차관 등이 참석, 남북경제협력의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이 상품 전시회는 남과 북이 함께 생산해낸 제품을 홍보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자리로 올해 9회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박 의원이 주최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신원, ㈜에스엔지, 삼대통상(주), ㈜로만손 등 개성공단 우리기업 12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 판매도 이뤄지며 수익금은 불우이웃들에게 사용된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남북경제협력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개성공단이 ‘통일의 열쇠’가 돼 남북경제협력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승남, 국회서 ‘고흥자연재배 쌀 시식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고흥자연재배 쌀 국회시식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의 공약사업인 자연재배 농법의 보급은 고흥에서 지난 2012년 2ha의 벼 재배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10ha, 2014년에는 20ha(21개 농가 참여)까지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생산량은 약 70t 정도이며 40kg 조곡 기준으로 약 8만원에 수매돼 수익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는 기존 농법보다 약 50%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 소개하는 쌀은 재배과정에서 비료·농약·제초제·퇴비·뽕질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토양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해 재배한 만큼 맛과

질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고흥·보성에서 시범재배를 통해 얻은 성과가 확산돼 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연재배 생산자인 고흥군 자연재배연구회 회원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 이동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1인당 한도 **최고 28억원까지 가능**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인내보증금대출      정부정책자금대출
- 신용대출, 상가대출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학원		학부	
<b>일반전형</b>			
① 원서접수 : 2014. 12. 1(월) ~ 12. 9(화)			
② 전 형 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전형일시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12.12(금) 오전 10:00~
		목회학과(D.Min.)	
		신학과(Th.M.)	
	석사	신학연구학과(M.A.T.)	12.13(토) 오후 3:00~
		음악학과(M.A.)	
유아교육학과(M.Ed.)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12.12(금) 오전 10: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12.13(토) 오후 3:0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한국어교원학과(M.A.)	
<b>정시모집</b>			
①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유아교육과	3	
예능	음 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3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기타,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포크기타, 일렉기타), 재즈피아노, 모질,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② 원서접수 : 2014. 12. 19(금) ~ 24(수)			
③ 전 형 일 : 2015. 1. 6(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